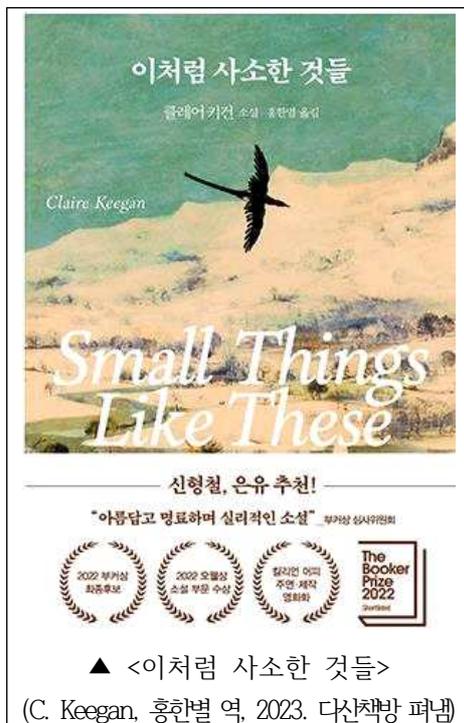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 Claire Keegan, 흥한별 역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읽고 -

청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이 한 진



일상의 행복과 유죄

추위를 잘 타는 난 겨울이 싫다. 점퍼를 꺼입는 게 불편하고, 출근길 자동차 유리창에 쌓인 눈을 치우는 일도 귀찮다.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켄 천정형 냉난방기에서 따뜻한 바람이 바로 나오지 않아 짜증도 난다. 이내 따뜻한 바람이 나오면 탁한 실내 공기가 내 눈을 간지럽히는 것도 싫다. 겨울이 싫은 이유는 내게 중요한 문제들이었다. 적어도 C. 케건의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만나기 전까지.

이야기는 예년보다 일찍 한파가 불어닥친 아일랜드의 한 시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주인공 펠롱은 운이 없었다. 가사 일꾼이었던 어머니와 함께 주인집에 얹혀 살았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딸감 판매 회사의 간부로 일하며 제법 먹고살 만해졌고, 행복한 가정도 꾸렸다. 펠롱은

과거에 머물기보다 아내 아일린, 딸들과 보내는 현재의 삶에 충실했다.

“우린 참 운이 좋지?” “힘들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펠롱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추위를 견뎌내기 어려운 이웃에게 스스럼없이 딸감을 나눠준다. 이웃을 측은히 여기고, 이들의 아픔에 공감한다. 어느 날 석탄을 배달하기 위해 수녀원에 방문했을 때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어린 소녀가 있었고, 이를 외면하고 집에 돌아온 펠롱은 불편한 마음이 가지질 않았다. 집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크리스마스 맞이로 평화로웠지만, 도와달라는 소녀의 호소가 자꾸만 그를 괴롭혔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모른 척해야 하는 일도 있는 거야. 그래야 계속 살지.” “어쨌든 간에,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딸들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잖아?” 아내의 성격은 펠롱과 묘한 대비를 이룬다. 좋은 아내이자 엄마지만, 딱 거기까지다. 아일린은 가족 모두가 단란하게 살고 있는데 이웃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늘어놓는 펠롱이 달갑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남편은 주머니에 잔돈이 생길 때면 어김없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눠 주는 착하지만, ‘속이 물러터진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바깥일은 가족과는 무관한, 단지 사소한 것들에 불과했다.

그녀는 펠롱에게 ‘신경 끄기의 기술’을 요구한다. 그런 것 같다. 사소한 것을 내 주변에서 깔끔하게 치우기 위해서는 마음의 단련이 필요했다. 요즘 출간되는 자기계발서들은 소소한 행복을 위해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자기 행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핵심에 집중하라고 권고한다. 안타깝게도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타인의 목소리는 주변부로 밀려난다. 문제는 그 훈련이 타자의 왜곡된 시선으로부터 자유여야지, 타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훈련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타인의 고통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해야 할 때 침묵은 최악일 수 있다. 강 건너 언덕에 자리한 수녀원은 마을 사람들이 신경을 꺼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수녀원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촘촘히 연결된 관계망 속에서 지속됐고, 한 통속인 마을 사람들의 방관에 견고함을 더 했다.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거기 일에 관해 말할 때는 조심하는 편이 좋다는 거 알지?”, “이 근방에서 잘 풀린 여자애 중에 수녀원이 운영하는 학교를 안 다닌 애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야.” “어느 한쪽하고 척지면 다른 쪽하고도 원수 되는 거야.” 흐르는 세월 속에 수녀원의 비행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은 무뎠다. 마을 전체가 타인의 고통에 아파해야 한다는 감각을 잃어버렸다.

타인에 대한 책임과 환대의 용기

나 행복 하자고 주변 목소리에 귀를 닫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소소한 행복이 아니라 비겁한 행복이다. 어쨌면,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여기에도 펠롱이 경험한 수녀원이 곳곳에 있다. 절대 외면하지 말아야 고통이 수없이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자들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얼마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간다. 나 살기도 바쁘다며 마을 한가운데 외딴섬을 짓는다. 들리는가? 도와달라는 이웃의 목소리가. 지근거리에서 호소하고 있는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보자. 내가 무시했을 뿐 그들은 이미 내 앞에 있었다.

정도의 차이지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타인의 고통에 무심하며, 자신의 일상을 살아간다. 펠롱 역시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기 삶을 살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고통 받는 타자의 목소리에 반응했다는 점에서 일반 사람들과 달랐다. 펠롱은 마을 사람들의 다그침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녀를 수녀원에서 데리고 나와 집으로 향한다.

소녀에게 외투를 건네고 함께 수녀원을 내려오는 펠롱의 행위는 예수의 대속(代贖)을 상징한다. 펠롱은 소녀가 겪는 고통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였다.

이 일로 앞으로 펠롱이 겪게 될 고통은 적지 않으리라. 그걸 알면서도 소녀를 이끌고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가볍고 당당했다. 가슴속에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솟았다. “대가를 치르게 될 테지만, 그래도 변변찮은 삶에서 펠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견줄 만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 펠롱이 소녀를 구했듯, 소녀는 펠롱에게 새로운 ‘펠롱’을 선물했다. 소녀야말로 펠롱에게는 구세주였다. 소녀와 함께하는 삶은 이제 시작이다.

어쩌면, 추위 속 크리스마스 준비로 분주한 마을 사람들의 소소한 행복이야말로 수녀원 아이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일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운이 나빴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괘시받고 사랑은커녕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결코 크리스마스니까 떠올려져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추위의 한가운데 있는 크리스마스는 고독과 빈곤을 서로 보듬는 날이다. 실제로, 추위가 찾아오면 사람들이 여느 때보다 주위를 둘러본다. 성탄절은 그 정점이다. 어김없이 성안길에 구세군 자선냄비가 등장하고 사랑과 희망의 종소리가 울린다.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야 12월 25일이지만, 날마다 성탄이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예수 탄생일은 펠롱처럼 타자를 맞이함으로써 이전에 없던 ‘나’가 탄생하는 날이어야 한다. 우리는 나 자신이 일상에의 함몰로부터 고통받는 타자를 만나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매일 매일 신비와 가슴 떨림으로 가득한 새로운 삶의 연속일 수 있다. 기적은 없다. 작은 용기가 나를 바꾼다. 이제 펠롱의 용기와 책임감이 더해져 세상도 한 걸음 나아갈 여지가 생겼다.

문득 365일이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지금은 덩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다. 크리스마스에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떠난 사람이 올린 여행 후기가 제일 먼저 뜬다. 해변에서 산타와 촬영한 사진, 얼음 빙수를 먹는 사진을 게시하여 이색적인 휴가를 자랑하기까지 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와의 분리에서 느끼는 해방과 독특한 만족감이다. 공적 삶과 아주아주 멀리 떨어진 여행은 자유라기보다는 방기다. 그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누릴 수 있게 해준 온갖 존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게 먼저다. 얼마나 표할 것인가? 충분했나? 여기서 만족이란 자기기만이다.

용기 내야 할 이유: 감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옆에 잠들어 있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내게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던 시절 기다려지던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철부지 두 아들은 선물을 기다린다. 늘 그래 왔듯이 두 아들에게는 선물을 전해줄 산타할아버지가 있다.

녀석들은 산타할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의 감사함을 잘 모른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는 보상 정도로 여긴다. 운이 좋게도 두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다.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사소하지 않은 행복이다.

서두로 돌아가서, 추위에 대한 나의 부정적 감정들은 ‘단지 나에게’ 중요한 문제들이었다. 나는 점퍼가 있고 자동차도 있다. 최신형 냉난방기가 내 정수리를 지켜보는 연구실도 있다. 심지어 내게는 냉난방기에 하자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동료도 있다. 그런데, 2023년 청주교대에 부임하고 다소 익숙해진 일상은 내가 누리고 있는 세계에 무더지도록 만들었다. 무더짐은 언제든 도덕적 악을 초래할 수 있다. 사소한 것들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나는 무엇을 잊고 살아왔나? 사소한 것으로 여기며 무시해 버리고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떠올려 본다. 나는 타자에 기대어 멀쩡히 존재한다.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나의 존재 사건에 연루된 모든 존재는 결코 사소할 수 없다. 나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온갖 것에 감사해야 한다. 어제저녁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먹은 파닭이 생각난다. 더위를 꼭 참고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튀기던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출근하던 길에 차창 밖에서 스멀스멀 들어오는 닭똥 냄새에 얼굴 찡그리며 양계장을 욕한 내 모습이 또렷하다. 급기야 지난 5월 도축장에서 일한다던 초등학교 친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문했던 일이 생각났다.

감사할 게 많다는 사실을 너무 잊고 살았다. 구순구개열이라는 선천성 질환을 지니고 태어나 놀림 받으며 자랐지만, 운 좋게도 난 두 손 두 팔은 멀쩡하다.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났지만, 운 좋게도 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지능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운 좋게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운 좋게도 난, 운이 좋게도 난 여전히 살아 있다. 그리고 이 운은 언제든 깨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추위보다 냉혹한 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당신이 고통받는 타자를 환대하는 때가 있다면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투명한 벽에 가로막혀 보지 못하는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펄렁이 용기 내어 내디딘 한 걸음이 나를 울린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공명하여 모두 함께하는 한여름날의 크리스마스를 꿈꿔본다. 일상에서 사소한 것으로 내쫓겨 버린 결코 사소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 앞에 소환하자. 시인 안도현이 내게 물었던 시구가 생각난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